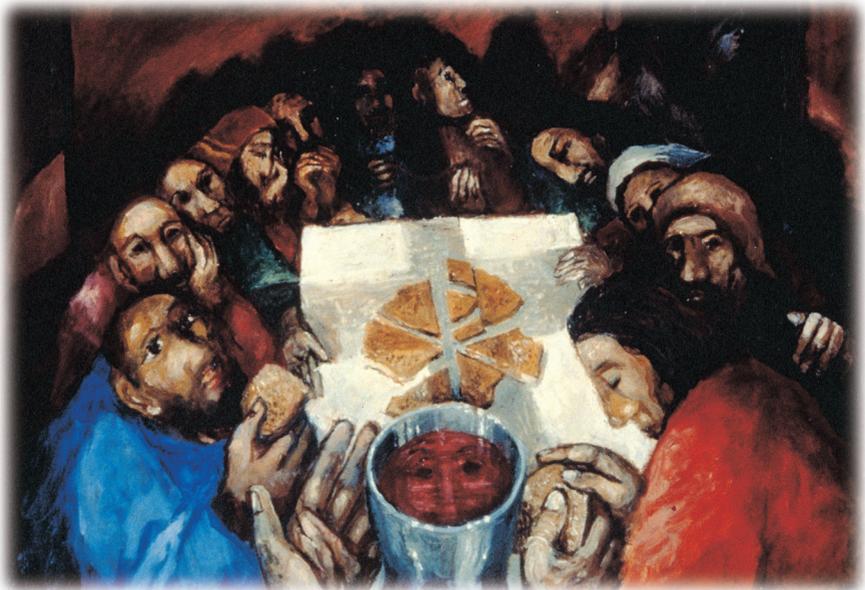


소공동체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11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복음 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
눅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와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소공동체 실천사항	
본당 공지사항	

두 아들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3절을 부릅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함께 이끌어 주소서.
- 우리와 함께 있기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을 느끼게 해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21장 28-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복음의 두 아들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은 어느 쪽인가요? 나 자신의 생활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금세기 최고 부자 중의 한명은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다. 그런데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은 불의의 재물을 쌓는 과정이었다. 록펠러는 자기 자본을 기초로 낮은 값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기업들을 도산시켰으며 유사 기업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자기 기업으로 합병시켰다. 이렇게 독점 기업을 세운 후에는 가격을 올려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했다. 그리하여 록펠러는 석유와 철도 부분에서 전미국의 95%를 독점하였으며, 록펠러의 이런 행동 때문에 미

국에서는 독과점 금지법을 제정하였으며, ‘당대에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런 록펠러가 53세 때 알로피셔(Alopecia)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서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면서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으로, 그로 인해 그가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우유 한 잔과 크래커 몇 조각뿐이었다. 마침내 담당의사는 “이런 상태로는 1년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이런 투병과정 중에서 록펠러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어느 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쳤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느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이후 록펠러는 몸이 회복되어 온전히 자선 사업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과 4,9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도왔으며, 페니실린의 약제화, 결핵, 디프테리아 등 질병 치료를 위해 그가 거액을 기부하였다. 록펠러는 “하느님에게서 돈을 버는 재능을 부여 받았기에 하느님이 명하는 대로 더 많은 돈을 주위 사람들에게 써야 한다.”고 말하곤 했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을 했다. 1937년 그의 나이 97세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생활은 주변에 사는 다른 농부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한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1,3절을 부릅시다.

인생수업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진행합니다.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 주세요.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4장 7-8절

7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 ③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교사입니다.

죽음의 강으로 내몰린 바로 그 순간, 삶은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 엘리자베

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 직전의 사람 수백 명과 인터뷰하여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인생수업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수업과 같다. 그 수업들에서 우리는 사랑, 행복, 관계와 관련된 단순한 진리들을 배운다.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삶의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는 단순한 진리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는가?

아침의 냄새를 맡아 본 것은 언제였는가?

아기의 머리를 만져 본 것은?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맨발로 풀밭을 걸어 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는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수업」中

생각 나누기

- ① 내가 지금 보러가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② 내가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 함께 실천해요!

진행자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 버리는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은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죽음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삶'인 것이다.
작별을 고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엔 '행복하라'는 것 외에는 다른 숙제가 없다.
살고(Live) 사랑하고(Love) 웃으라(Laugh), 그리고 배우라(Learn).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다.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 류시화

당신은 숙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논의가 필요한 일
들, 가족 친지들의 생일, 축일 소식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족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자녀에 대한 훈계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
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가정기도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모임길잡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와 선교 - 선교의 장애요소

소공동체 배우기에서는 두 달에 걸쳐 소공동체와 선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호에서는 선교의 장애요소에 대해 다룹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선교는 일부 열심한 사람의 몫이라고 여겨 선교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은 본당 전체 신자 중에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공동체 선교 의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미사만 잘 참례하면 되지 우리가 선교까지 해야 하나요? 선교는 레지오 단원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까지 꼭 해야 합니까? 소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힘든데 선교까지 해야 하나요? 우리는 신앙을 조용히 행동으로 증거하면 되지 꼭 발로 뛰어야만 선교인가요?

선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요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장애요소

선교할 용기가 부족하고, 삶이 완벽해야만 선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밖에 신앙지식이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여 선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파견 받은 사도라는 인식이 없는 것도 개인적인 장애요소로 들 수 있습니다.

외적인 장애요소

선교를 하다보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신앙인들에 대한 냉소와 불신, 비아냥거림, 면박, 거부 등에 부딪힙니다. 실제로 선교하려다가도 '너나 잘해라', '당신을 보니 믿어야 별 것 없을 것 같소'라는 사람들의 냉소

와 불신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막막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 결실이 너무 적다는 것도 장애요소로 작용합니다.

본당 공동체나 소공동체가 가지는 장애요소

공동체 책임자들 안에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합니다. 공동체 책임자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설명하다 보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신자들을 깨우치고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귄다와 섬김의 나눔의 공동체 힘을 깨닫지 못한 경우 본당 분위기가 냉랭하고 본당 공동체 안에 ‘성당만 나오면 된다. 본당 안에서 활동만 잘하면 된다’라는 낡은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선교-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위와 같은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생동안 복음을 선포하셨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이웃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소공동체는 이러한 교회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선교에 있어 소공동체가 가지는 장점들과 소공동체를 통한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웃음 치료반

임영애 세실리아(사파동본당, 2구역 3반 반장)

“세실리아야! 니 요즘 평일미사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온 거?”

늘 반갑고 씩씩하게 먼저 말을 건네는 마리아 형님은 성령의 에너지가 흘러넘치십니다. 전원주 못지않은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는 글라라 형님, 40~60대가 주를 이루는 우리 반은, 소공동체 모임을 할 때에는 각자 특유의 재담과 유머로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반장을 맡고 있는 소공동체, 2구역 3반의 모습입니다.

왠지 우울해 보이는 모습으로 소공동체에 참석을 한 반원이 보이면 우선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웃음 나오는 얘기들로 서로를 한바탕 웃깁니다. 기분전환은 그 반원의 기분을 상승시켜 우울했던 마음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문제를 조금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키지요. 우리는 다같이 그 반원의 우울했던 이유를 들으며 각자의 조언으로 위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반을 웃음 치료반이라 부릅니다.

복음나누기에서, 각자의 생활체험과 다양한 사건들을 복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해 나가다보면, 정말 인간적인 해석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의 실마리가 보이고 하느님의 진리가 오묘함을 다 같이 느끼며 공감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 얼마나 멋진 모임이지요!

사파공동성당은 사파동, 신월동, 토월, 창원상남동 4개 본당이 공동사목을 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지만 같은 성당이 아니면 서로 잘 모르고, 같이 활동하지 않으면 같은 성당 사람도 잘 모릅니다. 특히 새로 전입되어오면 더욱 혼란스럽습니

다. 그래서 우선, 같은 반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새로운 성당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공동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반원들의 움직임과 변화, 어려움이 모든 것들을 살피 도움이 되고자하는 반장의 활동과 그 반장들을 아우르는 구역장, 또 총괄 책임자인 지역부장,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과동본당은 총 6구역 1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우리 반은 2구역 3반에 속합니다. 우리 3반은 21세대로 약 80%가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50% 이상이 레지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목위원 및 각 제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각자 나름 열심히 신자들이 많습니다. 쉬는 교우가 많은 다른 반과 비교해 보면, 반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고 친밀감도 높은 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 구역장인 레지나 자매님, 반장인 로사 자매님과 같은 분들의 헌신적인 사랑 실천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또 여러 사회생활의 사정으로 인해 남을 되돌아보며 시간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자기희생의 또 다른 실천을 묵묵히 하고 있는 반장과, 구역장, 지역부장, 지역부차장,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지고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반은 오늘 소공동체 모임을 하며 우울증이 있어 보이는, 쉬고 계신 자매님의 상황을 알리고 그 자매님이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평화를 얻고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웃음 치료반으로의 초대부터 끈기 있게 해봄이 좋지 않을까 의논하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반장을 맡게 된 저도 이전 반장의 헌신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을 본받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인가요?

사목국

우리는 역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기록자는 역사의 사건이 가르쳐 주는 교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성경기록자는 사실성 보다는 그 사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즉 사실보다는 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사실과 진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은 그 사실 안에 숨어 있는 참된 의미까지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헌금함에 렵톤 두 닢을 넣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대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과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관점으로 본다면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다 넣은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은 것이 됩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역사나 사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삶 속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은 진리와 신학적 반성을 통해

연게 된 진실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예로 성경에서는, 성경기록자 자신들이 성령의 감도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신화나 전설(특히 창세기1-11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 양식들은 터무니없는 가상적 전설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인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역사적 삶과 체험을 통해 하느님과 세상에 대한 진리들을 깨닫고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왜 인간이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지? 등...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당시의 신화나 전설을 표현방법의 하나로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화나 전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로 깨우친 진실과 진리가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진리를 도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고심했던 신앙의 진실들입니다. 성경은 과학적 진리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 사건과 사물이 하느님의 구원의지에 어떤 위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남명혁(南明赫)·다미아노

- 옥중의 아내에게 편지 남기고 -

김길수 · 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그는 문벌이 아주 좋은 양반 출신으로 서소문 근처에 살며 흔히 양반가 자제들에게서 보듯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대갓집 자제로 향락에 빠져 철없는 양반가 자제들과 무위도식하며 시정의 무뢰배들과 어울려 술청을 드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소문을 지나다가 한 무리의 죄인들이 우차에 실려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구경꾼들이 몰려있는 사이로 죄수들은 참혹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서학도들”이라고도 하고 “천주학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의 모습이 너무도 편안하고 태평해보인 것이었다. 그중에 어떤 이는 내적 희열에 찬 듯 잔잔한 기쁨에 젖어 장중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뢰배들과 떨어져 호송하는 포졸을 따라 형장에까지 왔다. 그리고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끝없이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기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

다. 무슨 힘이 저들을 저토록 태연하게 하는 것일까? 끝없는 의문과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오래도록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두문불출하며 생각에 잠겼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는 천주교신자를 찾았다. 교리를 배우고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가며 지난날 자신의 방탕을 뉘우치고 무죄배들과 어울림을 끊었다. 마침 1834년 초에 서울에 오신 유방제 파치피코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열심한 신앙인이 되었다. 이분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한 남명혁(南明赫·다미아노, 1802~1839) 성인이다.

영세 입교한 그는 교리연구에 몰두하거나 이웃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이웃의 이광헌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함께 회장으로 임명받고 냉담자나 외교인들도 보살피고 병자를 위로하며 어린이들에게 대세를 주기도 하며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다. 양반의 자제로 인품과 언변을 갖추고 있는 데다 덕행과 열성이 뛰어나 모두가 호감을 갖고 말했다. “남명혁 회장님의 사랑은 천근의 무게를 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때 벗들이 그에게 웃으며 물었다. “후세에 자네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주었으면 좋겠는가?” 그는 점잖게 “성의회(聖衣會)회원 순교자 남명혁 다미아노라고 불러준다면 원이 없겠네.”라고 했다. 이렇게 일찍부터 순교를 열망하던 그는 1839년 부활축일을 보낸 다음 당시 조선

교구 제2대 교구장이시던 앙베르(Imbert) 주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집에 신자들을 모아 성사를 받도록 하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신자들이 몰려들었다. 앙베르 주교는 이들 사이에 무려 146명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사백주일(부활주일 후 첫 일요일)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셨는데 주교님과 수많은 교우들의 접대로 지친 남명혁과 그 가족이 아직 잠들어 있는 아침에 포졸의 습격을 받았다. 신자인 아내를 구해보려는 한 예비자가 어이없이 밀고했기 때문이었다. 이웃에 있던 이광현 회장댁도 함께 당했다. 주교관과 제의, 제복, 기도서 등을 모두 압수당했다.

관아에서는 주교관과 제의 등을 신기하게 여기며 추궁했으나 “그전 주문모 신부 때 것이라.”고 둘러대어 피하고 모진 형벌로 신자들을 밀고하라 했지만 “천주님의 계명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 그런 짓은 못하오.”하고 거절하며 신음소리도 삼가고 인내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 했다.

그는 옥중에서 자신보다 아내와 어린 자식이 심문을 당하고 형벌 받는 것을 더욱 아파하며 배교하지 않도록 격려하였다. 남명혁과 이광현 가족 등 20여명의 체포와 심문은 그해 4월 18일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을 발표하고 천주교 박해를 승인하여 1839년의 기해박해(己亥迫害)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다.

조정은 숙의한 끝에 남명혁 성인과 동료들에게 사형

을 주청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죽음을 앞둔 남명혁은 옥중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세상은 주막집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참된 고향은 천국ियो. 천주를 위하여 죽으시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길 바라오.」 그리고 영원한 길을 향해 떠날 준비를 차렸다.

운명의 날 1839년 5월 24일 십자가를 앞세운 회자수가 서소문 밖으로 향했다. 하늘은 높고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고 있었다. 살아생전에 순교자라 불리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그는 영원한 신앙의 동지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권득인 베드로, 박희순 루시아 등 8명의 교우들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셨다. 그의 나이 서른여덟, 남편의 순교 소식을 옥중에서 듣고, 부인이연희 마리아 성녀는 그해 9월까지 고문과 굶주림을 견디고 9월 3일 다섯 명의 동료 여교우들과 함께 참수로 순교하였다. 36세의 부인은 함께 잡혀갔으나 서로 다른 날에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한국순교 성인 103위 속에 나란히 함께 하고 계신다.

알 림

»»가정사목국

제349차 가나혼인강좌

일 시 : 2010년 11월 21일(주일) 13:00

장 소 : 마산교구청 강당

대 상 : 혼인성사를 앞둔 미혼 남녀

문 의 : 055) 249-7028~9, Fax.249-7100

신청서는 각 본당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Fax로 보내시면 됩니다.